

난가의 하락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김 정 응

(천호부화장 상무)

해마다 5월 20일경부터 계란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6월 한달동안 낮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7월 20일 방학이 시작되면 약간 올랐다가 다시 내림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2학기 개학 10일전쯤인 8월 20일경부터 회복조짐을 나타내며 開學과 더불어 계란 가격은 오름세를 계속하다가 秋夕을 피크로 다시 내림세를 보입니다.

〈그림 1 : 76~80년 대란가격곡선〉과 〈표 1 : 76~80년 대란가격(旬別) 변화표〉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5월 20일경 부터 계란가격 하락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生産原價를 훨씬 밑도는 가격을 形成하여 한없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筆者가 이 원고를 쓰게 된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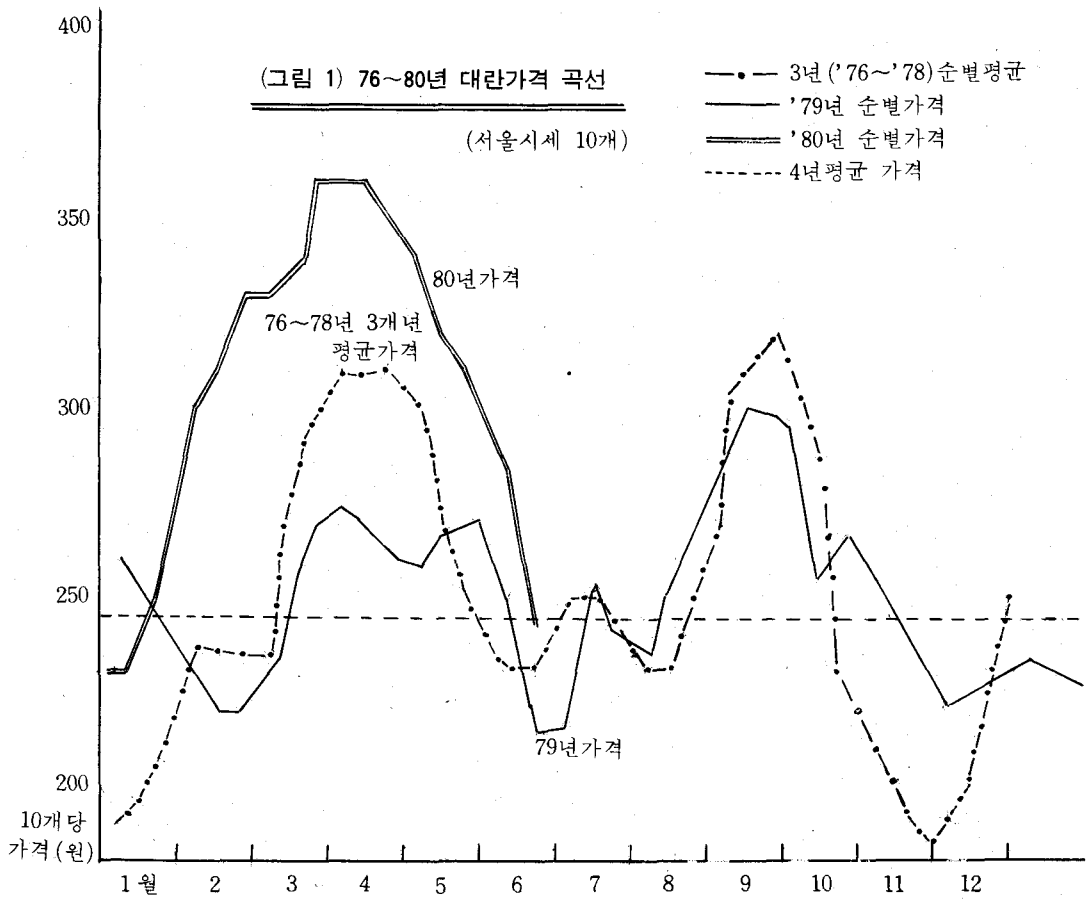
特別히 금년 6월의 계란가격이 심하게 下落한 原因은 消費大衆의 購買力 低下 때문이겠지만 해마다 6월의 계란가격이 低調한 원인을 列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動物性 단백질 食品으로써 계란과 직접적인 經絡관계에 있는 生鮮類가 5월부터 8월까지 그 魚獲量이 다른 계절보다 많아지며

또한 年中 이때가 魚價가 가장 낮은 時期이므로 아무래도 相當量의 계란이 生鮮에 의해 食卓이나 學生들의 도시락반찬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判斷됩니다.

學者들의 의견도 生鮮價格이 下落하면 계란소비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5月中旬이면 딸기를 위시한 夏과일이 수확출하되기 시작하며 6월 내내 靑果物은 어른이나 어린이나 모두 찾고 즐겨 먹기 때문에 靑과물을 사먹는데 들어가는 지출액은 집집마다 다른때보다 매우 많아진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초여름이므로 氷과류의 소비도 부쩍 늘어나고, 갖가지 채소류도 우리의 식탁에 많이 올라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계운영에 있어 주부들이 제한된 식품비용중 상당부분을 이들 靑과물, 채소류, 氷과류 등에 지출하고나면 다른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남지 않게 마련이므로 자연히 계란을 위시한 다른 식품의 구매량 즉 소비가 감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5월~8월 사이에 우리나라 가정살림중 靑과물, 채소류, 氷과류등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조사자료를 구할 수 없어 앞의 사실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우



(표 i) 대란 가격 변화표 ('76~'80)

-서울시세- (10개당)

년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초	중	하	평균	초	중	하	평균	초	중	하	평균	초	중	하	평균	초	중	하	평균
1	180	180	190	183	180	190	220	197	210	210	250	223	260	250	240	250	230	230	250	237
2	200	200	200	200	240	240	240	237	270	260	250	260	230	220	220	223	300	310	330	313
3	230	250	260	246	230	240	260	243	230	270	300	267	230	270	290	263	330	340	360	343
4	260	240	230	243	270	270	270	270	300	300	300	300	310	310	310	310	360	360	350	357
5	230	240	240	237	260	260	270	263	290	300	290	293	300	270	250	273	340	320	310	323
6	220	200	190	203	240	210	210	220	270	250	220	247	240	230	230	233	280	260	240	260
7	220	250	240	237	200	270	240	237	220	240	260	240	240	250	250	247				
8	210	210	230	217	230	260	300	263	260	280	300	280	230	230	240	233				
9	250	250	250	250	310	280	270	287	350	360	360	357	270	310	320	300				
10	240	230	220	230	240	220	290	250	340	310	290	313	310	280	230	273				
11	200	180	170	183	240	240	230	237	270	260	250	260	190	170	200	187				
12	200	200	190	197	250	230	220	233	250	250	260	253	230	250	250	243				
연평균				219				245				274				253				

표 2.1978년 어종별 어획량 기준 월별 생산량 변화 일반 해면어업(년 생산 2,000M/T 이상생산어종계)

어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계
가자미류	1,124	1,043	1,742	2,430	4,111	2,425	972	749	728	847	1,802	1,719	19,692
넙치류	266	243	253	343	327	244	182	158	159	157	248	530	3,110
서대류	158	179	135	342	314	316	184	555	620	506	391	323	4,023
노가리	12,285	9,422	10,976	4,578	3,669	6,115	8,456	10,763	8,953	5,835	4,882	7,089	93,023
명태	3,157	1,322	481	232	513	792	468	134	282	753	768	2,393	11,295
병어	186	156	150	358	1,176	1,036	2,522	1,318	1,310	1,177	1,248	830	11,467
참조기	6,157	1,363	2,095	3,457	1,811	448	547	1,030	1,089	1,835	1,973	3,279	25,084
강달이	1,160	1,500	1,378	2,457	1,528	2,193	3,197	1,553	2,662	4,409	3,649	3,329	29,033
갈치	350	187	743	1,353	1,790	4,604	8,355	9,270	12,788	11,252	17,020	18,353	86,065
도루묵	554	326	180	182	226	162	23	45	45	101	149	104	2,097
갯장어	151	124	127	136	891	695	1,287	1,302	1,343	1,845	1,252	699	9,852
붕장어	436	414	547	776	850	1,115	425	375	252	495	636	641	6,962
망둥어류	33	85	216	374	284	163	183	324	918	341	154	404	3,479
불락	248	288	370	418	415	435	360	312	328	355	318	249	4,096
양머리	141	98	44	141	261	44	93	109	94	1,035	1,362	1,881	5,303
송어류	163	239	334	571	695	372	217	201	252	334	249	381	4,008
뱅어류	-	-	20	392	2,209	1,657	1,177	201	121	9	3	-	5,789
복어류	808	293	434	181	317	118	456	408	295	433	247	278	4,268
멸치류	5,546	896	8,523	16,109	20,256	6,783	23,638	21,009	18,705	24,107	15,418	22,221	183,211
정어리	11	2	6,186	14,046	21,876	9,659	1,032	90	125	292	153	357	53,829
전연	87	53	884	972	719	437	258	400	711	739	585	1,314	7,159
뱅이	31	31	85	467	3,389	1,683	1,161	1,682	265	380	243	190	9,607
고등어류	229	251	5,918	7,286	7,541	6,787	12,495	13,060	17,262	13,054	8,118	7,518	99,519
전갱이류	3	1	-	468	42	30	24	133	1,709	784	411	343	3,948
삼치류	972	231	2,554	92	681	461	217	454	684	965	1,032	1,687	10,030
꽁치	1,611	157	1,938	1,318	4,587	4,149	145	7	1	13	1,951	5,867	21,744
준치	2	38	1,445	272	367	160	63	32	101	99	34	119	2,732
임연수어	321	417	692	694	325	209	105	79	109	129	177	255	3,512
상어류	470	149	335	457	620	847	326	421	336	179	649	226	5,015
아꾸	312	206	263	374	601	227	46	34	23	875	197	176	3,334
가오리류	767	1,001	1,040	962	1,207	895	275	586	1,118	652	1,004	1,565	11,072
퀴	17,631	6,581	10,484	9,691	19,140	17,740	29,957	17,048	14,875	18,310	21,106	17,357	199,920
기타어류	6,740	6,143	6,000	9,399	11,516	8,280	7,883	6,384	7,544	10,864	9,357	9,391	99,681
어류소계	62,110	33,439	66,572	81,346	114,254	81,281	106,729	90,226	95,807	103,161	96,966	111,068	1,042,959
중하	29	8	29	61	373	407	223	239	156	390	283	238	2,436
보리새우	-	-	14	9	251	1,798	355	146	227	136	47	34	3,017
갯새우	15	61	386	879	690	909	366	501	597	419	684	445	5,952
기타새우류	329	288	373	1,063	1,659	1,180	906	820	1,624	1,867	750	513	11,372
꽃게	29	41	105	1,628	3,109	2,926	199	249	2,497	2,266	2,116	1,526	16,691
기타게	221	272	330	434	2,951	1,577	247	258	1,034	976	926	987	10,213
갑각류소계	623	670	1,237	4,074	9,033	8,797	2,296	2,213	6,135	6,054	4,806	3,743	49,681
합계	62,733	34,109	67,809	85,420	123,287	90,078	109,025	92,439	101,942	109,215	101,772	114,811	1,092,640
구성비	0.08	0.03	0.06	0.08	0.11	0.08	0.1	0.08	0.09	0.1	0.09	0.11	
(%)	5.14	3.12	6.21	7.82	11.3	0.24	9.98	8.5	9.33	9.99	9.31	10.51	100

표 3.1978년 주요어종 평균가격

월별	kg당평균가격	가격월별구성비
1	226원	9.34%
2	192	7.94%
3	163	6.74%
4	160	6.61%
5	156	6.45%
6	143	5.91%
7	149	6.16%
8	178	7.36%
9	215	8.89%
10	258	10.67%
11	281	11.62%
12	298	12.32%
계	2,419	100%

월평균
8.33%이하
되는 기간

리 생활에서 이 기간중에는 지출의 상당부분이 前記 기호 식품 구매에 많이 지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以上 해마다 5월 20일부터 계란가격을 하락시키는 主要原因을 設明드렸을지나, 금년의 경우에는 根本적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현저히 低下되므로써 계란 소비량이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정부 發表에 의하면 16년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성장을 했으며, 작년 부터 실시해온 인플레이제정책으로 總消費 억제效果가 나타남에다가 작년 12월의 產油 國기구(OPEC)의 原油價引上에 따른 금년 1월의 국내유류가격의 60%引上, 금년 1월에 實施된 환율조정, 금리인상, 物價現實化 等의 일련의 경제정책조치에 의해 物價는 政府가 發表한 것 이상으로 상승한 것 같으며 근로소득자의 절대다수가 가만히 앉아서 실질 所得이 20~30%씩 減少되므로써, 消費大衆의 購買力은 작년수준의 切半水準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부들

의 생활비 절약을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때 보 다도 높은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계란소비위 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은 83명으로 증가한 실업인구 입니다.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의 상품구매력은 극도로 약 화되므로 계란소비를 감소시키는 주요원인중 의 하나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5월에 있었던 전국 대학생들의 데 모사태가 서민생활에 지장을 주었다고 본다면 이 데모사태도 계란소비위축에 일역을 했을 것이며, 특히 광주소요사태등이 계란소비 위축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것 입니다.

한편 계란의 生産 및 供給側面에서 검토해 보면 79년 봄입추시즌에 大量으로 입추된 계 균들이 아직 경제수명을 다하지 않은 시점 (時點)이므로 79년 5월에 비해 80년 5월에는 전국계란 생산량이 5.4%정도밖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나, 작년 가을의 환우계군을 감안한다면 5월의 계란생산 및 출하량은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6월에는 79년 6월보다 생산량이 약 12%정도 감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가가 계속 크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노계 출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는 계란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육계가격의 저조로 노계출하는 매우 어려우며 6월 초순부터 육계병아리의 판매부진으로 일부 종란이 식란으로 판매된 것이 난가하락에 약간의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상으로 卵價의 下落原因을 分析해 보았을지나 주원인은 역시 계란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월이후의 난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또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이 展望이 적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만 ...

정부는 지난 6월 5일 失業者求濟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당초의 금년도 총통화량 증가율 20%를 25%로 수정하여 인플레이션제 정책에서 일시적으로 후퇴하여 경기부양책을 쓰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어느 정도의 계란 소비 증가에 도움이 될지는 두고보아야 할 것이나 실제 7월부터 경기부양책을 쓰기 시작하더라도 근로자의 손에까지 돈이 들어가서 그 돈이 구매를 일으키기 까지는 적어도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7월 및 8월중순까지의 계란가격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가지 기대를 걸어보는 것은 7월에 들어서 작년 7월보다 계란 생산량이 약 17% 포인트 감소하며 8월은 작년 8월보다 약 20%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므로 <표 4 참조> 수요가 조금만 고개를 들어주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계란가격은 빠른 속도로 상승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7월 삼복더위때 육계소비가 원활해지고 가격이 好調를 보이면 노계가 많이 처분되어 제대로 계란생산량이 줄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2학기 개학이후에도 계란가격은 추석을 향해 완만한 각도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왕에 육계애기가 나왔으니 잠깐 언급을 해보면 <표 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육계사료 생산량과 79년 동기간의 생산량과 비교해보면 작년도의 절반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반도 못되게 육계가 사육출하되었으나 육계가격이 kg당 600원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육계소비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감히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표 4) 전국 월별 계란생산 예고지수

	1978	1979	1980	80 / 79증감율
1		936	1,049	⊕ 12.07%
2		957	1,049	⊕ 9.6%
3		989	1,045	⊕ 5.66%
4		1,024	1,029	⊕ 0.49%
5		1,049	993	⊖ 5.4%
6	758	1,086	955	⊖ 12.1%
7	815	1,151	954.8	⊖ 18%
8	885	1,202	961.2	⊖ 21%
9	928	1,206		
10	942	1,166		
11	930	1,102		
12	926	1,058		

<작출근거>

① 월별 전국 초생추 사료 생산량 × 월령별 산란지수(월간 1수당 산란개수) = X

② $X^1 + X^2 + X^3 \dots X^m = \sum_{X^i} X$

③ 끝자리 1000단위를 떼어낸 지수

(표 5) 배합사료 생산량의 '79년 5월대' '80년 5월 비교 (M/T)

품 목	79년	80년	증감율	비고
초생추	4,770	4,864	⊕ 2%	
산란	103,286	97,547	⊖ 6%	
육계	53,215	49,169	⊖ 8%	
양돈	108,669	53,000	⊖ 51%	

배합사료 생산량의 79년(1월~5월)대 80년(1월~5월)비교 (M/T)

품 목	79년1월 5월계	80년1월 5월계	증감율	비고
초생추	25,326	18,863	⊖ 26%	
산란	470,588	473,153	⊕ 1%	
육계	271,693	146,534	⊖ 46%	
양계사료	905,645	730,869	⊖ 19%	
양돈	420,090	344,934	⊖ 18%	

○ 9월 이후의 卵價展望은...

(그림 1) 76~80년 대란가격곡선과 <표 4> 전국 계란생산 예고 지수를 보시면서 卵價展望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과 10월은 지난 4년간 한번도 가격이 나쁜 기록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계란가격은 틀림없이 상승할 것이나 어느정도 상승할 것이냐는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어느정도 계란소비를 자극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와 계란 생산량이 작년동기간에 비해 20%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20%의 供給감소가 價格상승

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未知數입니다.

筆者의 臆측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금년 3월과 4월의 난가水準보다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 理由로는

첫째 <표 4> 전국 계란생산 예고지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9월~10월보다 금년 같은 기간의 지수가 20% 감소되며 同時에 그 指數의 水準이 지난 3월~4월의 지수보다도 7%정도 낮으므로 금년 上半期(1/4分期)에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經濟成長率이 제로에 가까웠던 이 기간에도 卵價는 10개당 대란가격이 350원線이었고, 特卵가격이 385 원

표 6. 초생추 사료 소비 추세

(단위 M / T)

월	1977		1978		1979		1980
1	1,714		2,585		3,925		2,438
2	2,008		3,047		4,994		2,535
3	3,970		4,937		6,121		4,237
1 / 4 계	7,692		10,569		15,040		9,210
4	4,241		5,340		5,516		4,780
5	3,856		5,413		4,770		4,864
6	2,749		4,095		2,873		
2 / 4 계	10,846		14,858		13,159		
상반기계	18,538	56.6%	25,417	55.3%	28,199	62.5%	
7	2,055		2,736		2,074		
8	1,937		2,780		2,288		
9	2,104		3,056		3,074		
3 / 4 계	6,096		8,572		7,436		
10	2,475		3,449		3,271		
11	2,655		4,087		3,259		
12	2,995		4,400		2,954		
4 / 4 계	8,125		11,936		9,484		
하반기계	14,221	43.4%	20,508	44.7%	16,920	37.5%	
년 계	32,759	100 %	45,925	100 %	45,119	100 %	

① 1977년 1/4분기 대비 1980년 1/4분기 : 19.7% 증가

② 1978년 " " : 13% 감소

③ 1979년 " " : 39% 감소

(주) ()수치는 추정치임

線을 유지했으므로 가을 盛需期인 秋夕 전후의 계란가격은 大卵 370~380원線, 特卵 410~420원線을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政府의 最近發表에 의하면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을 3%~4%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므로 상반기 경제성장율이 거의 제로라면 하반기 경제성장율이 年率기준으로 6~8% 정도가 되어야 政府가 발표한 금년도 경제성장율이 3~4%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반기(7월~12월)의 경기는 정부발표대로 된다면 상당히 부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 경기가 부양만 된다면 가장 값싼 단백질 식품의 하나인 계란의 소비는 크게 증대될 것이고 그 결과 계란가격은 供給量의 20%減小에 힘입어 앞에서 말씀드린 가격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10월 이후의 난가전망은 ……

10월의 개헌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그 이후의 난가는 상당히 高價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으나 대체로 例年처럼 11월부터 非需要期에 들어가 난가는 過去의 모형처럼 年中 가장 낮은 水準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10월이후 81년 상반기까지의 난가전망은 보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끝으로 채란업을 하시는 투자 여러분의 앞으로 사업계획에 참고자료가 될것 같아서 지난 몇년간의 초생추사료 생산량을 소개 합니다. 두번에 걸친 입추시즌에 산란용 초생추의 입식수수는 대폭감소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경기가 好轉되는 時期가 멀지않아 올것입니다. 따라서 기업규모 및 전업규모의 채란업을 경영하시는 양계가께서는 자금사정이 허락하는한 기본생산 계획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기가 호전될 때 호경기의 이익을 보게되며 그러므로써 장기간에 걸쳐 입은 결손을 벌여 들일 수 있습니다. 73년 10월 中東전쟁과 12월의 유류쇼크 그리고 세계 곡물과동 및 원자재 전쟁등으로 시작된 74~75년 불황도 2년을 계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반등할 시기가 얼마남지 않은것 아닌가 느껴집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어디 한번 두고 다같이 봅시다.

정확하고 신속한

시 세 업 서

대한양계협회 발행
1년구독료 5,000원